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 고안

金鶴羽(1862~1894년)

구한 말의 김학우(金鶴羽)는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를 고안한 발명가로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1862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그는

갑오경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32세로 암살을 당했다.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등에 능통했던 그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해외를 왕래하면서 전신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한글 자모의 모스 전신부호를 만들어 1885년 10월 3일 최초로

서울과 인천 사이의 전신을 개통시킨 산파역이다.

이제는 아무도 전신이나 전보의
고마움을 알지 못할 지경이다.

휴대전화가 세상을 덮고 있으니 그
옛 시절의 불편하던 통신수단을 고맙
게 기억할 수가 없게도 되었다.

20년쯤 전만 해도 전보는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다. 지금도 전보는 결
혼이나 승진 등을 축하할 때는 요긴
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
금의 전보가 옛날의 전보나 전신과
가장 다른 점은 모스 부호의 사용
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는 점이다.

옛날에는 바로 모스 부호란 것을
써서 전기 통신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부호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는 말이다.

모스(Samuel Morse, 1791~
1872년)라면 물론 미국의 미술 교사
로 처음으로 전신기를 발명한 그 사

람을 가리킨다. 1835년 말 처음 전
신기를 발명했고, 그것은 곧 선풍적
관심을 일으켜 세계 통신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것이 반세기 만에 조선
땅에 들어왔고, 우리 한글 자모의
'모스 부호'를 만드는 일을 담당했
던 사람이 바로 김학우(金鶴羽,
1862~1894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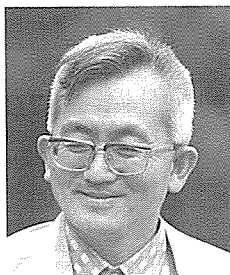
김학우를 소개한 이 대목을 읽으면
서 주의깊은 독자는 당장 그가 겨우
32세의 나이밖에 세상을 살지 않았
다는 점을 주목하게 될지 모른다. 사
실이다. 김학우는 겨우 32살의 나이
에 저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울에
서 암살당하여 세상을 떠났다.

한글 최초의 전신부호를 고안해 냈
던 발명가라 할 수 있는 김학우는 도
대체 무슨 연고로 암살을 당할 지경
까지 갔더라 말인가?

그가 암살당한 1894년은 지금부터
1백4년 전이고, 바로 유명한 갑오경
장(甲午更張), 또는 '갑오개혁'이 일
어난 해인데, 그는 왜 그런 때에 암
살당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를 살해
한 사람은 누구였고, 그 동기는 무엇
이었을까? 궁금하기 그지없는 일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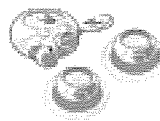
어렸을 때 러시아로 이주

1862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그는 일
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가뭄으로 살기가 더욱 어려워
지자 그의 어머니를 따라 작은 아버
지 김인승(金麟昇)이 10년쯤 전에 이
미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로 떠났
다. 함경도 사람들은 이미 1860년대
초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러시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아로 많이 이주해 살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랬던 그가 러시아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여하튼 그는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15살 때인 1876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인의 외국어 교사로 1년 반 동안 일본에 살았다. 바로 그 해에 일본은 강화도에 들어와 조선과의 개국 조약을 맺었고,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김학우의 숙부는 일본측 자문위원격으로 강화도에 일본 배를 타고 왔던 인물이다. 당연히 그의 숙부가 그를 일본에 보내는 일에 앞장 섰을 터이다. 그가 일본에서 무슨 외국어를 가르쳤는지 지금은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 조선어 보다는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가르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조선에서 가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 준 연고로 1882년 가을 서울을 찾아 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러시아 교포의 모국 방문 같은 것이 이뤄진 셈이랄까? 그리고 바로 그 때부터 김학우는 조선 정부의 필요에 따라 주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재주 좋은 김학우가 이것 저것 경험이 많아 쉽게 기술에 적응할 수 있었고, 특히 그의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실력이 그의 활약에 크게 도움되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1884년 가을 일본에 파견되어 전신 기술도 배우고 그러는 동안 처음으로 한국어 모르스 부호를 만들게 된 것이다.

1884년 말 그는 모르스 부호를 일본 땅에서 완성했다. 그가 한국어 모르스 부호를 만들고 있던 1884년 12월 서울에서는 우정국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은 뒷날 '갑신정변' (甲申政變)이라 불리게 된다. 김옥균 등 개화파 젊은이들은 이 혁명의 실패로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지만, 마침 일본에 가 있던 김학우는 그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는 개화파 청년들과 아주 가까웠고, 아마 서울에 있었다면 갑신정변에 한 몫 하다가 화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김학우가 조선을 떠난 것은 우리나라에 전신이 설치되기 직전인 1884년 가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갑신정변의 직전이기도 하다. 김학우는 그해 5월 새로 세워진 기기국(機器局) 위원이 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동경에서 일본의 전신설비 등을 연구했다. 고종에게 그 자신이 전신기술의 도입을 역설하여 임금의 허락을 얻어 일본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 러시아로 갔다가 뒤에 일본에도 갔던 인물이며 1884년 가을에는 다시 다른 조선인 한명과 함께 일본에 전신기술을 습득하러 갔다는 것이다.

서울~인천간 첫 전신 개통

김학우는 1885년 1월 26일 일본을 떠나 귀국했고, 서울로 돌아오자 바로 다른 조선 청년들 7명에게 전신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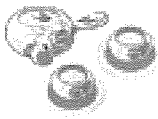
그후 7월 조선 정부는 중국과 전신 시설을 계약하여 10월 3일에는 인천과 서울 사이의 전신이 개통된다. 그리고 11월에는 서울과 의주 사이에도 전신이 개통된다. 바로 이 전신 시설의 협상 때에도 김학우는 기술자의 대표로 중국인들과 만나고 또 공사 현장에도 나가게 되었다.

1882년 천진에 유학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상운(尙濬)도 그와 함께 전신시설의 설비공사와 감독에 나섰다. 그러나 상운과는 달리 김학우는 특별히 전기에 대해 공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학우는 전신기술을 도입하고, 전신시설을 감독했으며, 또 '조선국 전신부호' 즉 모르스 부호를 만드는 등 1세기 전의 전신 도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자였다. 하지만 그는 전신기술과만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1885년 가을에는 중국의 상해(上海)에서 윤치호(尹致昊, 1865~1945년)를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만난 기록이 '윤치호 일기'에 적혀 있다. 윤치호 보다 3살이 많았던 그는 당시 고종의 명을 받아 총의 부속품을 구입하러 중국 상해에 갔던 것이다. 당시 조선은 서울 삼청동에 기기창(機器廠)이란 것을 만들어 서양에서 구입한 총을 수리도 하고 조립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과 부품을 도입하려던 것이었다.

일본에서 공부했고, 미국에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 윤치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해독자였다. 그는 1883



년 일본에서 서울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에 부임한 최초의 미국 영사 루시어스 푸트의 통역으로 일했다. 그 후 그 자리를 떠나 중국 상해에서 중서서원(中西書院)이라는 학원에 다니며 서양 근대학문을 공부하던 중이었다.

당시 상해에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더 젊은 청년들인 민주호(閔周鎬)와 윤정식(尹定植)도 근처에 살면서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김학우가 언제 상해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1885년 9월 13일에 이들 두 사람의 집에서 만난 이후 19일까지 이들은 매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다닌 것으로 윤치호의 일기에는 적혀 있다.

주로 그 비용은 김학우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실제로 돈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윤치호가 돈을 좀 꾸어주고 고국에 돌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받아달라고 하자 공금이라면서 거절했다는 대목도 보인다.

‘윤치호 일기’에는 그후에도 몇 대목 김학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886년 8월에는 김학우가 서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고종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적혀 있고, 곧 이어 10월에는 그가 러시아로 간다는 소문도 적혀 있다. 그는 청나라의 실권자이며 당시 중국의 조선 정책에 중요 인물이던 원세개(袁世凱)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에 분개하여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1887년 2월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보인다.

원세개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1886년 8월 그가 러시아의 미움을 사서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당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당시 조선 정부는 전신시설 등을 중국에 의존하여 건설하려했는데, 김학우는 이를 반대하면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조선 정부 스스로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세력 싸움도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다. 청나라의 원세개와 러시아의 웨버공사가 부임한 것도 그 전해였고, 1886년 2월에는 서울—부산 사이의 전신시설을 중국이 대신 맡아 건설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김학우는 이를 반대한 것이고, 청국이 그를 미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또 1886년에는 다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에서 기선을 구입해 오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1세기 전에 기술담당 관리라고는 전혀 없던 시대에 그런대로 기술적 적응력이 높았던 인물로서 당시 조선의 기술수용 노력을 담당해 그야말로 세계로 뛰어다녔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개화 노력은 보수파와 여러 갈등을 낳았고, 그들의 시샘을 받기도 했다. 여하튼 근대적 과학도 기술도 전혀 없었던 1세기 전의 이 나라에서 기술 도입을 주도했던 김학우는 보수파와 틈이 벌어져 결국 암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0월 31일 서울 전동의 자

기 집에서 강패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갑오경장때 32세로 암살

구한 말에 정교가 지은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에 의하면 김학우는 1894년 음력 10월 3일 밤 술시(戌時)에 이준용(李垞鎔)의 무리의 한 사람이던 전동석(田東錫)의 지시에 따라 최형식(崔亨植) 등이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적혀 있다.

대원군의 손자인 이준용은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다가 거의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개별적인 정치깡패 활동을 벌였고, 그 가운데 개화파 사람의 하나였던 김학우가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최형식 이외에도 이 때 함께 칼질을 하거나 암살에 직접 가담한 사람 이름 6명이 또 밝혀져 있다. 그때 김학우는 법무협판(法務協辦)이었는데, 찾아온 손님 김건행 등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에 앞서 대원군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아는 사람의 벼슬 자리를 부탁했는데, 마침 이 편지를 받은 김학우가 군국기무처에서 큰 소리로 “이 어른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군!” 하면서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았고, 이에 대원군이 그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결국 대원군 등의 수구파가 김학우를 암살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유능한 기술관료 한사람이 젊은 나이에 비운에 숨지고 말았던 1백5년 전의 우리 모습을 느끼게 된다. ㉮